

폭염 속 맹타! 장흥수씨 3언더파 우승

■골프버디 아마골프대회 3차 예선

한성CC 챔피언 출신 장흥수(사진)씨가 2011 골프버디 아마추어 골프대회 3차 예선 스트로크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장흥수씨는 20일 경기도 여주 스키야벨리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대회에서 전반 35타, 후반 34타를 쳐, 3언더파 69타로 이순호(전반 32타 후반 37타) 씨와 동타를 이뤘지만 카운트백에서 앞서 1위가 됐다. 이날 경기는 마치 미리 보는 결승전 같았다. 전국에서 올라온 아마추어 고수들이 대거 출전해 예상보다 좋은 성적이 거뒀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언더파



를 기록한 선수가 8명이나 됐다. 스트로크 부문에 걸려 있는 5장의 결승티켓은 모두 언더파를 친 선수에게 돌아갔다. 정광호, 강삼봉(이상 2언더파 70타), 박준철(1언더파 71타)씨가 3~5위에 올라 결승행을 확정지었다. 최만수, 김길준(이상 1언더파 71타)씨는 언더파를 치고도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신페리오 부문에서도 스트로크 부문 못지않은 치열한 순위다툼이 펼쳐졌다. 1위부터 5위까지 1타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이주승 씨는 그로스 72타에 핸디캡 3.60을 적용받아 네트 스코어 68.40타로 1위가 됐다. 스트로크 순위 3위에 오른 공병선씨는 신페리오 순위에서도 2위에 오르는 행운까지 접했다. 그 덕에 스트로크 6위였던 박준철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신동철, 최치원, 배경모씨가 3~5위를 차지해 결승 티켓을 잡았다. 여성부에서도 1타 차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1,2위 오른 노경희, 이진희씨가 3오버파 75타로 통타를 이뤘고, 김정숙 씨가 4오버파 76타를 쳐 결승진출을 확정지었다. 3차 예선을 끝낸 골프버디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다음달 11일 4차 예선을 치른다. 여주 1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na1872

스트로크 부문 최종순위

순위	선수	성적
1	장흥수	-3 69(35,34)
2	이순호	-3 69(32,37)
3	정광호	-2 70(34,36)
4	강삼봉	-2 70(34,36)
5	박준철	-1 71(35,36)

신페리오 부문 최종순위

순위	선수	성적
1	이주승	G72(HCP1.60)N68.40
2	공병선	G70(HCP1.20)N68.80
3	신동철	G76(HCP7.20)N68.80
4	최치원	G78(HCP8.40)N69.60
5	배경모	G78(HCP8.40)N69.60

여성부 최종순위

순위	선수	성적
1	노경희	+3 75(40,35)
2	이진희	+3 75(37,38)
3	김정숙	+4 76(36,40)

주최: Golf Buddy 후원: 스포츠동아

해체 위기 용인시청 핸드볼팀

'우·생·순' 해피엔딩을 위하여...

코리아리거서 광주도시공사 꺾고 단독선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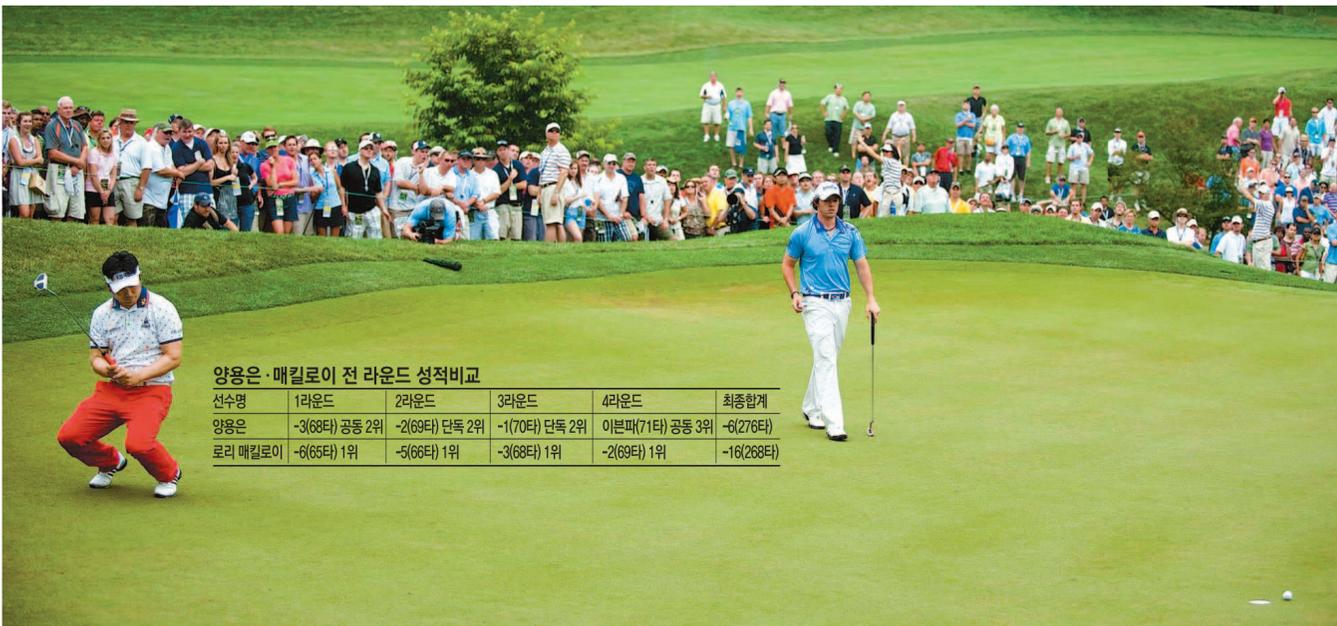
20일 오전, 용인시청 여자핸드볼 팀 선수들의 급여통장에는 6월 한 달의 팜방음이 찍혔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월급이었다. 용인시 측은 체육계와 지역사회에 여론에도 불구하고, 6월을 끝으로 핸드볼 팀의 해체를 예고했다. 그리고 이날 말,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직장팀 심의위원회'에서 핸드볼 팀의 존속여부를 최종결정했다. 2008베이징올림픽대표출신의 수문장 이민희(31·용인시청)는 "이제 마지막 월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쩡하다"고 했다. 마침 20일은 대구실내체육관에서 2011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광주도시공사와의 경기가 있던 날이었다.

용인시청 김윤학 감독은 "선수들의 동요가 심했다. 4월 대회가 시작하기 전 겨우 선수들을 다독여 출전했다"고 말했다. 몇몇 선수들은 팀을 나가 다른 일거리를 찾았다. 국가대표 출신의 모 선수는 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또다른 선수는 운동 강사가 됐다. 그레도 "내가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핸드볼"이라며 코트를 지킨 선수들만이 남았다. 세살 짜리 딸을 둔 엄마선수 김정심(35),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 권근혜(24), 국가대표출신의 명복희(32) 등이었다.

현재 용인시청은 12명의 선수로 구성돼, 다른 팀보다 3~5명이 적다. 교체인원이 부족해 선수들은 경기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권근혜는 관절의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훈련도 소화하지 못하고, 경기에만 나선다. 그럼에도 용인시청은 이번 대회 돌풍을 일으키며 7월 플레이오프(PO) 진출을 확정지었다.

이민희는 "부상자도 많았지만, 우리가 잘 해야 팀의 존속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푹푹 뭉쳤다. 후배들에게 '다른 팀으로 뺄뺄이 찢어지지 말고, 여기서 끝까지 한 번 해보자'는 애걸 한다"며 눈망울을 밝혔다. 용인시청은 20일 광주도시공사를 31-23으로 꺾고 8승1무2패(승점 17점)를 기록, 이번 대회 단독선두로 치고 나왔다.

대구 1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양용은·매길로이 전 라운드 성적비교

선수명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최종합계
양용은	-3(68타) 공동 2위	-2(69타) 단독 2위	-1(70타) 단독 2위	이븐파(71타) 공동 3위	-6(276타)
로리 매길로이	-6(65타) 1위	-5(66타) 1위	-3(68타) 1위	-2(69타) 1위	-16(268타)

로리 매길로이(오른쪽)가 20일(한국시간) 열린 US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양용은이 퍼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배스스타(미 매릴랜드 주) | AP 연합뉴스

매길로이 16언더파 최소타 US오픈 정상

골프신동, 황제가 되다

대기록의 사나이! 그는 누구인가?

2004년 주니어 라이더컵 유럽 우승 공신
2007년엔 세계아마추어 골프랭킹 1위도
19세때 유럽골프투어 상급랭킹 2위 기염



"언제나 자신감이 가득 차 있죠.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는 최고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가 2009년 한국오픈에 출전해서 남긴 말이다. 스스로에 대한 긍정과 확신으로 가득한 스물 두 살의 청년 매길로이는 제111회 US오픈에서 대회 최다 언더파(16언더파 268타) 기록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골프 '신동'에서 '황제'로 거듭났다.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성장한 골프 신동

2살 때 드라이버로 40야드를 날리고, 9살에 첫 헌신원 기록했다는 일화는 미PGA투어 공식 홈페이지도 소개될 만큼 유명한 일화다.

1989년 북아일랜드 홀리우드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 게리와 어머니 로지 사이에 태어난 매길로이는 어릴 때부터 골프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아들의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부모들은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매길로이는 "부모님이 나를 위해 숲집에서 테이블을 닦고, 럭비클럽 라커룸을 청소하기도 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주니어 시절 그는 군체일학이었다. 2004년 주니어 라이더컵에서 유럽 팀의 우승을 이끄는 등 화려한 아마추어 시절을 보냈다. 2007년 2월에는 단 1주 동안이었지만 세계 아마추어 골프랭킹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에도 프로대회에 초청받아 출전할 정도로 주목받는 기대주였다. 2007년에는 타이거 우즈(미국)가 타깃월드첼린지에 초청했지만 "유럽투어상급랭킹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거절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우승으로 차세대 골프황제로 주목

2008년 프로로 전향한 매길로이는 2009년 2월 유럽프로 골프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서 역대 최연소(19세) 우



로리 매길로이가 20일(한국시간) US오픈 정상에 오른 뒤 우승 트로피를 한손으로 들어 보이며 기뻐하고 있다.

배스스타(미 매릴랜드 주) | AP 연합뉴스

승 기록을 세우며 프로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타이거 우즈의 '멘토'로 유명한 마크 오메라(미국)는 당시 매길로이에 대해 "볼을 때리는 기술이 19세 시절의 우즈보다 낫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매길로이는 그해 유럽골프투어에서 361만 유로(56억원)를 획득하며 상급 랭킹 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새로운 황제로 급부상

매길로이는 2009년 타이거 우즈가 성추문으로 급격히 추락한 이후 이시카와 료(일본), 앤서니 김 등과 함께 포스트 타이거 우즈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우승을 통해 매길로이는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확실한 차세대 골프 황제로 자리매김했다.

메이저대회 공포증도 훌륭하게 극복해냈다. 지난해에는 브리티시오픈 첫날 9언더파 63타로 4대 메이저대회 최소타 타이 기록을 세웠지만 둘째 날 8타를 잃고 무너졌다. 올해 마스터스 최종라운드에서도 4타차 단독 선두를 달리다 후반 3개 홀에서 급격히 무너져 우승권에서 멀어졌던 아픈 기억을 US오픈에서 말끔히 털어냈다.

미국 언론들은 매길로이의 US오픈 우승 직후 "우즈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새로운 황제의 등장을 알렸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serenowon

제 111회 US오픈 매길로이의 기록들

항목	기록	종전 기록
최소타 우승	268타	272타(1980·1993·2000·2003년)
최다언더파 우승	16언더파	12언더파(2000년·타이거 우즈)
경기중 최다언더파	17언더파	12언더파(2000년·타이거 우즈)
54홀 최저타	199타	200타(2003년·짐 퓨릭)
36홀 최저타	131타	132타(2009년·리키 번스)
와이어투와이어 역대 6번째	타이거 우즈(2000·2002년)	
최연소우승	22세 1개월	잭 니클라우스(1962년·22세5개월) *2차 대전 이후 최연소 우승

16언더파 268타! 최소타...최다 언더파...

우즈도 넘었다

로리 매길로이(22·북아일랜드)가 US오픈 골프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차지함과 동시에 이전까지 작성된 각종 기록들을 대부분 갈아 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매길로이는 이번 대회에서 16언더파 268타로 우승했는데 이는 US오픈 사상 최소타, 최다 언더파 우승이다.

종전 최소타 기록은 1980년 잭 니클라우스, 1993년 리 잰슨, 2000년 타이거 우즈, 2003년 짐 퓨릭 등이 세운 272타다.

2000년 타이거 우즈(미국)가 세운 최다 언더파(12언더파) 기록도 11년만에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매길로이는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계속 단독 1위를 지키며 우승하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6번째 선수로도 기록됐다. US오픈에서 최근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선수는 우즈(2000년과 2002년) 뿐이다.

최연소 US오픈 챔피언 관련 기록도 추가했다. 이 부문 기록 보유자는 1923년 우승한 보비 존스로 당시 존스는 21살이었다.

1989년 태어나 올해 22살인 매길로이는 비록 이 기록을 경신하지는 못했지만 존스 이후 88년 만에 탄생한 이 대회 통산 9번째로 어린 우승자로 기록됐다.

메이저대회 최다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잭 니클라우스와 타이거 우즈도 모두 22세에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기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길로이는 US오픈 사상 세 번째로 나흘 내내 60대 타수를 기록하는 기록도 작성했다. 비록 우즈가 2000년 US오픈에서 세운 2위와의 최다 타수 차이 우승 기록(15타)은 깨지 못했지만 매길로이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김경태·노승열·김도훈 공동30위

희망 쏜 한국의 '젊은 피'

미PGA투어 US오픈에서 한국의 젊은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선배 양용은(39·KB금융그룹)이 공동 3위(6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마치며 한국 선수의 US오픈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후배들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 노승열(20·타이틀리스트), 김도훈(21·넥슨)은 나란히 공동 30위(2오버파 286타)에 올랐고, 강성훈(24·신한금융그룹)은 공동 39위(3오버파 287타),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은 공동 42위(4오버파 288타)로 대회를 마쳤다. 주인공은 우승을 차지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였지만 한국선수들은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미국무대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했다.

●PGA에서도 통한 다양한 해외 경험

한국의 젊은 선수들에게 세계무대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다. 국내 무대에 안주하지 않고 아시아투어, 일본투어, 유러피언 투어 등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덕분이다. 김경태는 지난해 일본투어에서 삼강왕을 차지했고, 세계랭킹 상위랭커 자격으로 미PGA 대회에 출전하며 호시탐탐 우승을 노리고 있다. 지난해 유럽투어 말레이시아오픈에서 우승한 노승열 역시 아시아투어와 유럽투어, 미PGA투어를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다. 일본투어에서 활약중인 배상문과 김도훈도 지속적으로 경험을 쌓으며 내공을 키워가고 있다.

●체계적인 준비, 메이저 우승 가능성 충분

이들은 주니어 시절부터 미PGA투어 진출을 목표로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다. 최경주나 양용은 등 선배들이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해가며 골프를 배우고 미국에 진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덕분에 스윙이나 장타력, 체력 등에서는 세계 톱 랭커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지속적으로 큰 대회에 출전하며 승부근성과 배짱을 기르고,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고덕호 SBS골프 해설위원은 "스윙 매커니즘에서는 세계적인 톱 랭커들과 경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약점인 쇼트게임과 프리볼샷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용은도 "후배들이 경험을 더 쌓는다면 1~2년 안에 우승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지 적응을 위한 언어 공부, 낯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 등을 보강한다면 한국 선수들이 미PGA무대를 정복할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원성열 기자